

# 군산을 만든 용왕의 아들

군산은 용왕의 아들이 배움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한다. 스승을 위해 창고천의 물줄기를 바꾼 그의 따뜻한 마음은 용왕난드르 마을에 면면히 전해오고 있다.



**대평감산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777-6 ~ 안덕면 감산리 345-1(약 3.5km)

**상아니울로** |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418 ~ 안덕면 감산리 73(약 1km)

**대평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870-1 ~ 안덕면 창천리 914-2(약 0.5km)

**난드르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820-16 ~ 안덕면 감산리 982-8(약 0.9km)

**한밭로** |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569 ~ 안덕면 감산리 851(약 1.7km)

**소기왓로**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777-2 ~ 안덕면 창천리 1056-1(약 1.3km)

## 대평감산로/상아니올로 | 군산



군산

대평감산로는 안덕면의 가장 동쪽 해안에 위치한 대평리와 감산리를 잇는 길이다. 이 길은 바닷가 마을인 대평리에서 시작해 월라봉과 군산 두 오름 사이를 지나 감산리로 이어진다. 대평감산로 동쪽으로 보이는 오름이 바로 군산이다. 창천리, 대평리, 예례동까지 걸쳐있는 군산은 산의 형세가 군막(軍幕)과 같다고 해서 군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군산은 길이 잘 나 있어 정상까지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정상에서는 넓게 펼쳐진 대평리 앞바다를 비롯해 산방산과 한라산의 모습까지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준다.

군산이 생기게 된 유래와 관련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창천리 인근에 학문이 뛰어난 강씨 선생이 살고 있었다. 그는 주변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글을 따라 읽히면 꼭 문 바깥에서 따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강씨 선생은 몇 번이나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 소리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잠이 든 강씨 선생의 꿈에 동해 용왕의 아들이 찾아왔다. 용왕의 아들은 사실 3년 간 선생 밑에서 몰래 글을 배웠노라고 하며, 이제 용궁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 동안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다. 강씨 선생은 부족한 것이 없어 괜찮다고 했다. 용왕의 아들은 그러면 서당 옆에 있는 창고천의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글을 가르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으니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7일 동안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천둥소리와 벼락이 7일 내내 계속되었다. 집안을 떠날 수 없어 답답했던 훈장은 마지막 칠일 째가 되자 밖이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는데 그 때 날아든 불티에 눈을 맞아 한 쪽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다. 7일이 모두 지나자 주위는 조용해졌다. 강씨 선생이 밖으로 나와보니 산이 하나 새로 생겨나 있었다. 그리고 서당 옆에 흐르던 창고천이 산 건너편으로 흐르게 되어 그 후로는 물 흐르는 소리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대평감산로를 따라 군산을 지나면 안덕교 인근에서 상아니올로가 갈라진다. 상아니올로는 이곳의 지명인 상아니골을 반영한 이름이다. 상아니골은 쌍안이골이라고도 하는데 지형의 모양이 쌍기러기가 앉은 형태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주변에 있는 동산 두 개가

거의 똑 같아서 기러기 한 쌍이 날아가는 형태라서 그렇게 불렀다고 전한다.

## 대평로/난드로로 | 용왕난드르 마을

대평리의 이름을 딴 **대평로**는 대평감산로에서 갈라져 대평포구까지 이어진다. 대평리(大坪里)는 군산 남쪽의 해안가 마을이다. 대평리는 북쪽과 서쪽에는 군산과 월라봉이,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어 산과 오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 대평포구에서는 박수기정의 절경도 만날 수 있다. 병풍처럼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박수라고 불리는 샘물이 솟아 있는데 이 물을 맞으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백중날 물맞이하러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용왕난드르 마을

대평로의 남쪽으로 나란히 나 있는 **난드로로**는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대평리의 옛 이름에서 따왔다. 바다가 멀리 뻗어나간 들판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군산의 유래에 등장하는 용왕의 아들이 살았던 넓은 들판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평리에서는 용왕난드르 마을이라는 테마로 바다와 오름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한발로 | 월라봉 갱도진지

**한발로**는 대평감산로에서 갈라져 나와 월라봉으로 향하는 길이다. 감산리에 전해오는 한발이라는 옛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길이 이어지는 월라봉은 도래오름이라고도 하는데 달이 떠오르는 오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옛 고어 중에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는 도래라는 열매를 의미한다는 설도 있다. 군산과 달리 월라봉은 오르기가 쉽지 않다. 월라봉을 올랐다 내려오는 제주올레 9코스는 다른 코스에 비해 길이는 가장 짧은데 난이도는 가장 높은 코스일 정도이다. 월라봉에서는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산방산과 용머리, 형제섬, 그리고 송악산까지의 풍경이 한 눈에 펼쳐진다. 이렇게 바다가 잘 내려다보이는 오름이어서 조선시대 때 해안가로 들어오는 적을 감시하기 위해 호산봉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일제강점기의 일본군도 그런 점에 주목했다. 일본군은 화순해안으로 상륙하려는 연합군을 저지하기 위해 월라봉에 갱도진지를 뚫고 해안을 감시했다. 현재 월라봉에는 7개의 갱도진지가 확인된다고 한다.

## 소기왓로 | 소기왓

대평리 마을의 동쪽으로 나 있는 **소기왓로**는 난드르로와 만나는 대동교에서 시작해서 군산 아래까지 이어진다. 이 길이 지나는 곳은 소기왓 또는 쇠기왓이라 불렀는데 지형이 소의 귀를 닮았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대평리에는 소나 말과 관련된 지명들이 전해온다. 당캐라고 불렀던 대평포구는 옛날 당나라와 교역을 하던 배가 드나들던 곳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마소와 관련된 지명들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을 것이다. 그 중 월라봉 남쪽의 물질은 중산간에서 기른 말을 감산리에서 대평포구로 끌고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만약 이 말을 배에 싣다가 소나 말을 놓치게 되면 쉼목이라는 곳으로 몰아넣어 잡았다고 전한다.

